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박은우, 편집인: 이성우
편집: 농생대 홍보·편집위원회
(김진모·배정환·이준용·임정빈·전창후)

송재홍 동문, 발전기금 17억 쾌척



왼쪽 세 번째부터 이장무 서울대 총장, 송재홍 동문, 박은우 농생대 학장, 농생명공학부 노희명 교수

■ 송재홍 동문(농화학과 83)이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을 위해 쓰일 장학기금 17억 원의 출연을 약정했다. 지난 2008년 10월 14일 열린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기금 출연을 약정한 송재홍 동문은 2월 19일 협약식을 갖고 약정액 중 1억 원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송재홍

장학기금'으로 명명되어 농생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지난 2008년에도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는 송 동문은 2005년부터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왔다. 또한 더 많은 인재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초 현동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생대 집중 모금 캠페인 'CALS Vision 2013'

☞ 자세한 내용은 2면 ~ 5면 CALS Vision 2013 특집에 계속

한재용 · 유상렬 교수, WCU 사업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한재용 교수(농생명공학부)와 유상렬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지원한 2개의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WCU 사업은 향후 5년간 예산 8,250억 원을 투입해 외국 석학을 초빙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 석학을 전일제 교수로 채용해 새 전공·학부 개설(유형1) △기존 학과 또는 연구소에 외국 학자 한두 명을 전일제 교수로 채용(유형2)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유형3)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에 유치되는 해외학자는 280여 명으로, 그 중 203명은 전일제 교수로

국내 대학에 채용되어 국내교수와 공동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 해외학자는 국내대학의 교육 및 연구 풍토 혁신에 개혁 촉매 역할을 해 연구역량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과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1에 선정된 한재용 교수는 연구과제 '생체 모델 및 기능조절기술 개발 융복합형 연구네트워크'를 가지고 '바이오모듈레이션(Biomodulation)' 전공을 신규 개설하게 된다. 유형2에 선정된 유상렬 교수의 '식품안전 첨단기술개발과 교육을 통한 식품안전 기반 구축' 과제에는 미국 Washington State Univ.의 Dong-Hyun Kang 교수가 참여한다.

☞ 자세한 내용은 6면에 계속

2면 농생대 헤드라인 CALS Vision 2013

1면 _ WCU 사업 선정

2면 _ CALS Vision 2013

3면 _ 네이밍 기부

4면 _ 나눔의 모습

5면 _ 기금 출연자 명단

6면 _ CALS Global Challenger

7면 _ 농생대·수원시 MOU 체결

8면 _ 농생대 인사이드

9면 _ 신입 교수 소개

10면 _ 언론에 비친 농생대

11면 _ 학장 신년사

12면 _ 농생대 사람들

Vision 2013

CALS Vision 2013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집중 모금 캠페인 'CALS Vision 2013'을 야심차게 시작한다.
세계 유수 대학을 뛰어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2013년 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총력을 다하여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생대를 'Global Leader의 요람'이자 농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하는 '혁신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 되는 이번 모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이 기대된다.

기부자의 정성, 이렇게 열매 맺는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은 교수연구와 학생교육 지원을 통해 농생대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설립되어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학생, 독지가, 단체 등 여러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년 간 성장을 거듭해 온 교육연구재단은 농생대 소속 연구소와 교육, 연구지원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수연구 및 학생교육과 관련된 특강, 학술 회의, 도서 출판, 교재 개발 등에도 기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부자의 정성을 모아 수우 우보명 장학금, 염도의장학금, 염동해장학금, 영생장학금, 오펜환장학금, 일성장학금, 청담장학금, Key Club장학금 등을 운영하여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금 지원을 통해 특강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가 2008년 6월에 걸쳐 개최되

었다. 각계를 대표하는 강연자가 농생대를 찾아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의 시상 또한 교육연구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연구와 교육 등의 뛰어난 업적으로 농생대와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교수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과 농업생명과학 학술상, 교육상을 지원하고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학 인물사전 편찬과 소식지, 요람, 대학 홍보 자료 등 각종 출판물의 제작, 전산실, 도서관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부자의 귀한 정성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기금지원 사업 내용 결정과 예산 배분은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시상식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후원 역시 농생대 발전의 씨앗

서울대학교가 2025년 글로벌Top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모금캠페인 'Vision 2025'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지정하여 참여하면 해당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농생대의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Vision 2013

기부자의 이름을 기립니다.

공간 네이밍 - 기부자 예우

■ 농생대는 'CALS Vision 2013'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의 뜻과 정성을 기리기 위하여 농생대의 특정 공간을 기부자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예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일정액 이상의 농생대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세미나실, 강의실 등에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는 이전에 체육관, 연구관 등 건물 건축 및 증축 기금을 지원한 기부회사의 이름을 따서 건물명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우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그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나눔의 실천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ALS Vision 2013' 모금 캠페인을 계기로, 농생대의 미래를 위한 넘치는 정성의 손길로 농생대의 곳곳이 아름다운 나눔의 이름으로 장식되기를 기대해본다.

다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자에 대한 공간 네이밍 예우 사례

서울대 경영대 기부자 강의실 헌정식 서울대 최초 학번 강의실 등장



〈사진 : 서울대 홍보부〉

서울대 경영대는 대학을 위해 기부금을 출연한 출연자를 예우하는 뜻으로 기부자의 이름을 딴 강의실을 마련하고 1월 23일 명명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총 13개의 강의실에 기부자의 이름이나 호를 딴 이름이 붙여졌다.

경영대에는 지난 2007년 '해강강의실'이 생기면서 기부자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첫 등장했다. 경영대학원 동창회장인 대성그룹 김영대 회장의 기부를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대 발전에 공헌하라는 부친이자 대성그룹 설립자인 해강 김수근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부친의 호를 따서 명명했다.

특히 83학번 동문들의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83학번 세미나실'은 서울대 최초의 학번 강의실로 기념할 만하다. 또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경영대 과수근 교수의 제자로 이루어진 '덕송회'에서 마련한 1억 원의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헌정된 '덕송회 토론실'도 있다.



중앙대의 '교수연구동 및 체육관'의 한 쪽 벽면.

2004년 건축한 이 건물을 짓는 데 정성을 보탠 520여 명의 사진을 타일 하나하나에 담아 한 쪽 벽면을 장식하고 그들의 정성을 기리고 있다. 〈조선일보 2005. 5. 16.〉

Vision 2013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대 장학생이 저소득층 초·중고생 지도 - 새싹 멘토링

대학에의 기부의 혜택이 해당 대학을 넘어 사회로 확산



■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은 1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 재학생의 3분의 1인 1만여 명이 저소득층 학생들과 결연을 맺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9월

김선동 전 S-Oil 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며 서울대에 35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이 기금에서 한 해 1,000만원씩 장학금을 받는 서울대생 70명이 매주 한번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5명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새싹 멘토링 사업’이다. 서울대는 이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서울대생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대의 장학생들은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가난 때문에 과외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청소년들은 든든한 멘토를 얻어 공부와 함께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기부한 기금이 해당 대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외된 계층에게도 꿈과 희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사진: 서울대 홍보부〉

“자라나는 세대에 베풀어야 그들도 실천”

서울대에 자신 이름 딴 강의실 생긴 황복현 씨

[동아일보 2009년 1월 8일자(우정열 기자) 기사 정리]

■ 1998년 서울대 경영대 최고위과정 수강을 계기로 서울대와 인연을 맺은 인테리어 자재 생산업체 영림임업(株)의 황복현 대표는 2008년 경영대 건물 리노베이션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재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서울대 경영대는 그의 이름을 딴 ‘황복현 토론실’을 만들었다.

황 대표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부터 인천시와 함께 맞벌이 부모를 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숲 생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버스 임차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인원만 5,000여 명이다. 그는 “사업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라며 “여유 있는 사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주 베풀어야 그들도 사회에 감사하며 베풀을 실천할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난 해 황 대표는 인천 월미공원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식수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여름철이면 한 달에 80~90만 원의 생수 값을 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원대와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황 대표의 설명이 흥미롭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강원대 출신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게 고마워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일 뿐입니다.”

기부 선진국 미국은...

투표율보다 높은 미국인들의 기부율

[서울신문 2007년 6월 27일자 기사 정리]

■ 2006년에 미국인이 기부한 자선기금 총액은 2950억 달러(약 273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 액수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자선금 총액의 4분의 3이 기업이나 단체, 거액 재산가들이 아닌 개인의 소액기부였다는 점이다. ‘기빙 USA 재단’에 따르면 연간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계층 가운데 65%가 2006년 자선기금을 냈는데, 이 계층의 투표율 보다 높은 기부율이라고 한다. 이미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기부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었기에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기부 문화가 일반화된 데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저명인사들의 기부행렬이 기폭제가 됐다. ‘부의 사회 회원은 부자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던 카네기와 록펠러 등 갑부 1세대가 있었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명 인사들이 부를 사회에 돌려줌으로써 미국은 위대한 기부의 전통을 세울 수 있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각종 단체들이 민간 외교를 펼치는 데 든든한 자금줄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도 직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기부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기부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이러한 활동들을 기폭제로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ision 2013

CALS의 미래를 만들어주신 분들

- 기간: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출연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자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정 출연

* 1억원 이상

- 한국전력공사 중부계통건설소(김쌍수 사장) 500,000,000
- 송재홍(농화학과 83입) 100,000,000

* 5천만원 이상

-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60,000,000
- 최양도 교수(농생명공학부) 50,000,000
- 최윤재 교수(농생명공학부) 50,000,000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창업지원센터 50,000,000

* 1천만원 이상

- 안정업(수원농과대학 1938년 졸업 김영준의 처) 30,000,000
- ㈜에스씨에프 30,000,000
- ㈜삼우종합건축사무소 29,500,000
- 그린랩프 28,800,000
- 정윤환(임학과 56입) 27,000,000
- ㈜일성화학(정윤환 대표이사) 11,700,000
- 유한김벌리 10,800,000
- 광지상(산림자원학과 52입) 10,000,000
- 박석희(농경제학과 72입) 10,000,000
- 박순조(임학과 55입) 10,000,000
- 이현수(농화학과 60입) 10,000,000
- 농협중앙회 서울대지점 10,000,000
- 한국마사회 10,000,000

* 5백만원 이상

- 박은우 교수(농생명공학부) 9,400,000
- 서남석(식품공학과 73입) 5,000,000
- 윤희진(축산학과 62입) 5,000,000
- ㈜서울신문사 5,000,000

* 1백만원 이상

- ㈜바이오포아(조선희 대표이사) 4,000,000
- 이학래 교수(산림과학부) 3,000,000(7,500,000 약정)
- ㈜내츄로바이오텍(장경섭 대표이사) 3,000,000

- ㈜밀투밸런스(조석호 대표이사) 3,000,000
- 피타코이드㈜(박영세 대표이사) 3,000,000
- 박필선 교수(산림과학부) 2,700,000
- 수목원 2,530,000
- 임봉주(임학과 65입) 2,000,000
- 오펙환장학금 1,710,000
- ㈜고추와육종(윤재복 대표) 2,000,000
- 바이테리얼즈(오성환 대표이사) 2,000,000
- ㈜베스트테크코리아(김종현 대표이사) 2,000,000
- ㈜이지코스(황지일 대표이사) 2,000,000
- ㈜패션푸드(김복현 대표이사) 2,000,000
- ㈜하이스(김종관 대표이사) 2,000,000
- 고재균 명예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000,000
- 박찬원(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07입의 부) 1,000,000
- 박태식 명예교수(산림과학부) 1,000,000
- 안강현(농산업교육과 90입) 1,000,000
- 이미순(농학과 56입) 1,000,000
- 이형주 교수(농생명공학부) 1,000,000
- 이호진 교수(식물생산과학부) 1,000,000(5,000,000 약정)
- 하중규 교수(농생명공학부) 1,000,000
- 홍기현 교수(경제학부) 1,000,000
- 최고농업정책과정 7기 1,000,000
- 최고농업정책과정 8기 1,000,000
- ㈜푸름바이오(박현준 대표) 1,000,000

* 1백만원 미만

- 강재호(농공학과 85입) 500,000
- 신경수(농공학과 84입) 500,000
- 정원순(㈜농협유통의식사업센터장) 500,000
- 최용석(농공학과 81입) 500,000
- 대한이이엔씨㈜(박용선 대표이사) 500,000
- ㈜조일테크엔지니어링(윤산목 대표이사) 500,000
- 케이엠컬처㈜(박무승 대표) 500,000
- ㈜한준건설(송한용 대표이사) 500,000

- 현대건설㈜(이종수 대표이사) 500,000
- 광기호(실험목장) 300,000
- 김상수(농공학과 78입) 300,000
- 김용하(임학과 79입) 300,000
- 이정재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77,780(10,000,000 약정)
- 정석균(임학과 77입) 250,000
- 공영호(임학과 79입) 200,000
- 이활일(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08입의 부) 200,000
- 구창덕(임학과 73입) 100,000
- 김낙배(남부학술림) 100,000(1,200,000 약정)
- 김원일(김상진기념사업회) 100,000
- 김철민(임학과 77입) 100,000
- 박동균(임학과 76입) 100,000
- 서정훈(기획실) 100,000(1,200,000 약정)
- 양봉진(산림자원학과 71입) 100,000
-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 100,000
- 이경영(행정실) 100,000(1,200,000 약정)
- 이경학(임학과 78입) 100,000
- 이돈구 교수(산림과학부) 100,000
- 이삼규(학생행정실) 100,000(1,200,000 약정)
- 이영준(임학과 81입) 100,000
- 이임영(임학과 81입) 100,000
- 장해석(임학과 73입) 100,000
- 정문호(산림자원학과 95입) 100,000
- 정주상 교수(산림과학부) 100,000
- 현정오 교수(산림과학부) 100,000
- 김정옥(식품·동물생명공학부) 50,000(600,000 약정)
- 박정호(남부학술림) 50,000(600,000 약정)
- 전종순(부속실) 50,000(600,000 약정)
- 최경미(서무행정실) 50,000(600,000 약정)
- 정세윤(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006입) 41,600(500,000 약정)
- 세이프푸드㈜(조용식 대표이사) 10,370(2,000,000 약정)
- 서민영(서무행정실) 10,000

※ 분할납부하고 계신 기부자의 납입금액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 학생 지원 프로그램 제2기 CALS Global Challenger, CALS Internship 프로그램

■ 해외 선진 농업시설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된 CALS Global Challenger 프로그램의 2기 선발 학생들이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2팀이 탐방을 다녀왔던 2008년 여름의 1기와 달리, 2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개팀 16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해외 우수 시설 탐방의 기회를 잡았다. 이들은 1월 19일에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6개팀 중 4개팀은 미국으로, 나머지 두 팀은 각각 뉴질랜드와 덴마크로 떠나 자신들이 결정한 주제와 일정에 따라 우수한 기관과 시설을 둘러 보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미래 농업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로의 꿈을 키우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CALS Internship은 재학생이 국내의 기업체 및 국제기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실무를 경험해 보면서 미리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해외 기관으로 2명, 국내 기관으로 2명의 학생이 연수를 다녀왔다. 농경제사회학부 김유정 학생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로테르담지사에서, 작물생명



제2기 CALS Global Challenge와 정철영 학생부장

과학 전공 송종석 학생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Agro Genesis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으며 동시에 해외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기업에서 연수한 동물생명공학 전공 김지원 학생은

식품, 의약, 농업, 축산 등 생물자원분야 전문 기업 이지바이오시스템, 환경재료과학 이후동 학생은 국토정책개발과 관련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에서 귀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신설 WCU 사업, 전공·학과 개설지원 과제 선정



한재용 교수(농생명공학부)

■ 한재용 교수(농생명공학부)가 과제 ‘생체모델 및 기능조절기술 개발 융복합형 연구네트워크’로 ‘WCU(World Class University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의 핵심과제인 전공·학과 개설지원 과제(유형1)에 선정됨에 따라 농생대에 신규 전공이 설치된다. 신설되는 학과(전공)의 명칭은 ‘바이오모듈레이션(biomodulation)’으로 2009학년도 2학기에 석사 과정 27명, 박사 과정 10명 정원으로 개설된다. 바이오모듈레이션 분야는 인류복지 증진을 위한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생명과학, 의학, 수의학, 생물-물리학 및 공학이

결합한 통섭학문이다.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굴되지 않은 신학문 분야인 이 전공의 설립 목표는 국제적인 교육-연구네트워크 창출을 통하여 21세기 신성장동력이 될 산업분야 창출 및 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다.

WCU 사업의 추진으로 농생대의 국제화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에는 8명의 해외학자가 참여하고 이상렬 교수(농생명공학부)의 유형2 사업(과제명 : 식품안전 첨단기술개발과 교육을 통한 식품안전 기반 구축)에도 1명의 해외학자가 참여한다.

농생대 - 수원시, 수원수목원 조성 및 개방에 관한 MOU 체결



왼쪽부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김용서 수원시장, 농생대 박은우 학장

■ 수원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자연 학습의 장으로 개방된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은우 학장과 김용서 수원시장은 2008년 12월 22일에 수원시청에서 수원수목원 개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원수목원은 식물의 종 다양성 확보와 수목의 교육·연구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1985년부터 조성되었다. 22ha에 달하는 면적의 수목원에는 소나무 등 700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고 있으며 20여 개의 관찰원이 있다. 현재는 사전 예약제에 의한 단체 견학을 실시해 연 평균 1,200여 명이 수원수목원을 찾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농생대와 수원시는 수목원의 본래 설치 목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돕고, 시민들의 숲 체험 활동과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수원시의 발주에 의해 농생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관련 연구자와 학생들에게는 수원수목원의 기능 강화로 인한 연구 학습효과 상승이, 시민들에게는 자연학습 체험장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인 최초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 선출
산림과학부 김성일 교수



김성일 교수(산림과학부)가 세계적 환경단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로 선출되었다.

2월 4일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IUCN 이사회에서 김 교수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4년의 지명이사에 선정되었다.

유엔 지원으로 1948년 창설된 IUCN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단체로 현재 84개 국가, 111개 정부기관, 870여 개 비정부기구가 가입되어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아시아 지역 총 2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아시아 지역 의장으로도 임명되었다.

농식품산업 조찬 세미나

■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와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회장 박은우 농업생명과학대학장)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농식품산업 조찬 세미나'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 정기 세미나는 지난 2008년 9월 시작되어 올해 2월 3회째를 맞이하였다.

2008년 9월 4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세미나에는 연구, 교육, 장학사업 등 다방면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대산농촌문화재단 정태기 이사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농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과 함께하였다.

제2회 세미나는 2008년 12월 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강한 농식품산업 프로젝트'를 주제로 농식품산업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특강하였다. 이어진 제3회 세미나는 2월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는 순천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상규 교수가 '녹색혁명,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앞으로도 농식품산업 조찬 세미나는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NICEM,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판식

NICEM,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판식

2008년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식물생산과학부 이석하 교수)은 2008년 12월 23일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진호 환경안전원장, 선일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기술지원팀장 등과 함께 농생대 박은우 학장, 전 현직 NICEM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NICEM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다시 한 번 축하했다. NICEM은 지난 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 표준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립대학공동실험실습관 중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되었다.

바이오에너지 연구팀 심포지엄 개최



바이오에너지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에너지 연구팀(팀장 농생명공학부 서진호 교수)은 1월 7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동향'을 주제로 바이오에너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Moose 교수와 진용수 교수,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순철 박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의 김경현 교수, KIST의 상병인 박사, 서울대 농생대 김도순 교수(식물생산과학부)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바이오매스 자원개발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및 정책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 활동들이 소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홈페이지 오픈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의 홈페이지(<http://greenbio.snu.ac.kr/>)가 구축되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서울대학교와 강원도, 평창군이 공동으로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홈페이지는 연구단지를 널리 홍보하고 사업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홈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연구사업단 유치

산림과학부는 산림청이 지원하는 산림과학기초연구사업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연구사업단' (단장 윤여창 교수)을 유치하였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 기관인 산림청에서 대학원생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림과학부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교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다.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우수연구집단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서울대학교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소장 농생명공학부 이인원 교수)는 1월 14일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장기 교수(농생명공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연구센터 개소식에 이어 이 날 오후에는 "New Horizon on Fungal Biology and Pathogenesis"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을 위한 생명·환경과학 체험학습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의 생명·환경과학 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생명·환경 과학 체험학습' 겨울방학 교육이 2008년 12월 17일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생명·환경 과학 체험학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실험을 비롯해 유전자 조작 등의 생명과학 관련 실험, 공기·토양·물 등 환경의 질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환경과학 체험학습 참가자(1/7~9)

남부학술림 수목관찰원 암석원 준공



남부학술림에서는 2월 17일 수목관찰원 암석원의 준공행사를 가졌다. 특성화된 주제원을 조성하여 수목관찰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조성된 암석원은 면적 4,000㎡에 모암지, 계류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자생식물 및 외래식물을 도입하여 고산의 암석지에 서식하는 식물 수집과 관리를 통해 교육과 연구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식물에 대한 관심 고취와 식물유전 자원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암석원 조성은 약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3,600여만 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09년 3월 1일자로 농생대에 신규 임용된 교수진 소개



허진희 교수

식물생산과학부(원예과학 전공)에 신규 부임한 허진희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美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2006년부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유전생화학이며, 종자발생학 등의 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한다.

농생명공학부(응용생명화학 전공)에 신규 부임한 배의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美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선임 연구원, 명예 연구원을 거쳐 2007년부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단백질공학/생물리학이며, 물리화학과 생화학1 등의 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한다.



배의영 교수



Ekaterina Nagornyak 교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에 신규 부임한 Ekaterina Nagornyak 교수는 러시아 출신으로 러시아의 Ural State University에서 학부 및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2004년부터 美 University of Washington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Biophysics이다.

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 전공)에 신규 부임한 Hong Sok (Brian) Kim 교수는 미국 출신으로 美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Cornel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관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지속가능한 지역계획이며, 지역계획론, 지역개발특론 등의 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한다.



Hong Sok (Brian) Kim 교수



강동현 교수

강동현 교수는 WCU 유형2에 선정된 연구 과제 '식품안전 첨단기술개발과 교육을 통한 식품안전 기반구축' 수행을 위해 WCU 초빙교수로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에 부임한다.
강동현 교수는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美 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식품위생학으로 Food Safety 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하며, '식중독 원인균의 신속 검출법과 첨단 제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농민신문 2009년 1월 5일자〉

[시론] 농업재해 프로그램 확충 필요하다

—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요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농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30% 이내로 머물러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의 85%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과 환경조건 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손실 보상과 경영위험 축소를 위한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데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조선일보 2009년 1월 20일자〉

[초점] 국립공원이 돈 버는 수단에선 안 된다

— 산림과학부 윤여창 교수

[요약] 우리나라 환경보호는 세계 꼴찌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세계가 알아주는 국립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립공원을 놀러 가는 공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 걱정이다. 얼마 전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마을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국립공원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국립공원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보호지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도시의 공원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국립공원 안에 도시가 생기고 국립공원의 경치가 잘 보이는 높은 곳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되고 고산생태계는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 아니라, 현재 세대가 즐기고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 2009년 2월 22일자〉

[기고] 귀농은 낭만적 영화가 아니다

— 농산업교육과 이용환 교수

[요약] 농촌, 농업은 더 이상 변화의 물결에서 제외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 이상으로 삶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는 소비자들이 아껴주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낭만적으로 ‘농촌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선,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농업도 마찬가지다. 귀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낭만적인 생각만으로 농촌에 가게 된다면 필경은 (위장노리)의 할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문화일보 2009년 2월 16일자〉

[기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ODA 전략

—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김귀곤 교수

[요약]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덕적 의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 총장은 또 전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속가능목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실패할 경우 빈곤 문제도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유엔이 채택한 새천년발전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지원해 왔다. 새천년발전목표란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 191개국 정상들이 채택한 ‘새천년발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이듬해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에 걸쳐 달성해야 할 수치적 ‘국제 발전 목표치(IDTs)’를 말한다. 이 목표에 상응하는 40개의 지표가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작성됐다. 이들 지표는 각각의 목표치에 관한 진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 변화 이슈가 세계적인 의제로 등장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ODA 전략 수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첫째 새천년발전목표 시한인 2015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둘째 에너지와 기후 변화 이슈가 환경 지속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ODA로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에는 0.2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한국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형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만큼 ODA의 증액과 함께 녹색성장 정책에서 추구되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표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의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 발전 목표 이후(Post-MDGs)’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9년 2월 25일자〉

[중앙시평] ‘가정산업’ 키워 여성 인재 활용 늘리자

—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이정재 교수

[요약]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미국의 69%에 훨씬 못 미치는 54%쯤이다. 보수도 남성의 69% 정도에 불과하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고급 인재들임에도 가사에 묶여 사회에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실로 딱한 노릇이다. 1970년 62세이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십 년에 네댓 살씩 늘더니 어 느덧 80세에 이르렀다. 수명이 길어지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저런 공부를 마치고 55세에 은퇴해도 생애의 70%가 지났을 뿐이다. 그 20여 년을 버텨 내야 하는 막대한 팔십 평생이 된 것이다.

건강관리보험공단은 지난해 전 인구의 10%인 노인이 전체 보험료의 29%를 쓰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돌파구는 고학력의 젊은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령 노동력에 적절한 훈련을 접목시켜 살림 · 육아 · 교육 등 가사를 규격화한 산업, 가정 가정산업을 키워 나가면 어떻게. 가정산업이 성장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노인 입장에서든 폐쇄한 환경에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새 세대에게 전통을 전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은퇴 후 20년이 막막하거나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세대 간의 협력으로 젊은 딸들이 부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고령 세대는 소득을 올리면서 젊은 세대와의 스킨십을 유지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득이 되는 올 윈(all win) 게임인 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철저한 감독과 지원을 한다면 가정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가정산업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렸다.

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농생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서 추진하셨던 많은 일들에 큰 성과가 있었으리라 믿으며, 우리 농생대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들이 베풀어 주신 이해와 도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현실점에서 우리 대학이 화합과 단합된 분위기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성취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 한분 한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근래에 보지 못한 변화와 시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특히 세계 곡물과 에너지 파동,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위기의식 표출 등은 먹거리와 환경의 중요성을 사회가 더욱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대학으로서는 우리의 역할과 능력을 더욱 발휘해야 할 좋은 기회를 다시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신년인사에서 2008년을 '농생대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서 성취하신 여러 가지 업적은 우리 대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생대 세계화 원년'의 성과로 삼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몇 가지만 요약하여 나열하면 농생대 교수 1인당 논문발표실적(SCI급 2.7편/학인등재지 포함 5.1편), 6개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유치(교육과학기술부 SRC 1개소와 NRL 1개,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사업단 4건), 2개 WCU사업 선정, NICEM의 KOLAS 국제표준시험분석기관 인증,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설립, 평창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건립, 농생대 총동창회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금년에 신규임용되는 13명의 외국인 교수 및 국제협력위원회 출범 등은 우리 대학의 연구력과 연구여건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학교 행정 차원에서도 연구행정실과 연구부학장 설치,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국제활동지원 강화, 신입교수 정착지원 강화, 우수 연구 및 강의 교수 포상, 맞춤형 학생상담시스템 구축과 CALS 특강 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속 농장, 목장, 학술림, 수목원 지원을 강화하였고, 200동 건물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을 깨끗하고, 편리하며, 편한 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더욱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

하면 저는 우리 대학이 세계 우수 대학에 버금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생대 가족 여러분, 현재 학내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에도 고강도의 혁신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내에서는 자유전공학부의 신설과 교과과정의 다양화,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 희망 학생수 증가는 농생대의 학사과정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법인화 준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국내외적으로는 작금의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농생대가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의에 의하여 억지로 끌려가는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선도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창의적이며 인본(humanity)을 중시하는 우수한 농산업 인력과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서울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己丑年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는 근면성실과 유유자적의 대명사로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입니다. 금년에는 '농생대세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생대 집행부는 소와 같이 근면성실하게 차분히 '봉사와 지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좋은 여건에서 연구와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일에 대하여 끊임없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생대 가족들 간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우리 대학이 더욱 일하기 즐거운 직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은우



[교직원소식]

결혼

▶2월 22일 남부학림 손정은 선생 결혼

부고

▶2008년 12월 6일 산림과학부 박대식 명예교수 별세

▶2008년 12월 7일 산림과학부 이강주 선생 모친상

[동문소식]

▶최동규 동문(농학66)이 2008년 12월 17일 3년 임기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종환 동문(농공학73)이 2008년 12월 18일자로 농협중앙회 신용 담당 집행간부(상무)로 승진하였다.

▶정학상 동문(축산학70)이 1월 14일 BBQ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용하 동문(임학79)이 1월 20일자로 제7대 국립수목원장에 임명되었다.

▶하영제 동문(농공학74)이 1월 23일 국립수산물품질 제2차관으로 선임되었다.

▶정광수 동문(산림과학부 대학원)이 1월 23일자로 제28대 산림청장에 임명되었다.

▶홍주민 동문(축산학72)이 2월 2일자로 임기 3년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영규 동문(식품공학72)이 2월 10일 롯데주류B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원인희 동문(농공학73)이 2월 12일 해외건설협회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서문원 동문(농학74)이 2월 19일 NH선물의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한승호 동문(조경학76)이 2월 26일 임기 2년의 이노비즈협회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교수동정]

▶조종수 교수팀(농생명공학부)은 2008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Roche Macro Polo Symposium 2008에서 "Akt 1 silencing efficiencies in lung cancer cells among sh / si / ssiRNAs using a reductable polyspermine carrier" 논문으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이돈구 교수(산림과학부)는 세계산림 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회장 자격으로 2008년 12월 6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Forest Day 2 - UNFCCC COP 14 Parallel Event - Shaping the Global Agenda for Forests and Climate Change에 참석하여 폐회사를 하였다.

Forest Day 2는 세계적으로 정부, 사회, 지역이 협동하여 대화를 통해 숲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세계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단 좌측 두 번째 이돈구 교수)

▶우보명 명예교수(산림과학부)가 2008년 12월 8일자로 사방협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사방협회는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협회로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방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체이다.

*전화: 02-965-5091

▶노재선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08년 12월 11일 한나라당 이계인 의원이 개최한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귀곤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2008년 12월 15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도시포럼 기획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신경제 새마을운동 과제선정과 추진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김완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08년 12월 16일 여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수질보전 자구책과 친환경농업인의 보다 나은 생산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팔당클린벨트사업'에 대해 강의했다.

▶2009년 3월 창립발 '기후변화 대응 농업포럼'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노재선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08년 12월 24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준비위원회를 열고 창립총회와 토론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조종수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008년 12월 17일부터 2009년 1월 11일까지 말레이시아 University Teknologi Mara에서 초빙교수로 활약하였다.

[동창회 소식]

▶수원임학동문회가 서울대학교임학 동문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악 캠퍼스 내 산림과학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사무실 위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7221호

– Tel / Fax: 02-888-4752

– 이메일: iforest.snu@gmail.com

– 홈페이지: http://eco.snu.ac.kr

▶서울대학교임학동문회 신년교례회
서울대학교 임학동문회는 1월 7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정윤환(임학56) 동문회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故박대식 명예교수에 대한 추모공연과 함께 2008년 경과 및 신년 사업계획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2009년 신년교례회에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연구재단 소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은 2월 16일 교내 두레미당에서 2009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을 심의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8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3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8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실 T.880-4526 F.873-2031

실험국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0-4847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3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1

F.873-5426

전자계산실 T.880-4527 F.880-4528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T.880-4827

F.882-7670

중등교육연구원 T.880-4844 F.872-6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창업지원센터 T.(031)294-8526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519

식품공학 T.880-4824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880-4510, calsw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3.2(월) 제1학기 개강, 입학식

3.2(월)~6(금) 제1학기 수강신청 변경

3.16(월)~27(금) 제2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3.25(수) 수업주수 1/4선

4.2(목)~8(수) 하계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4.16(목)~17(금) 제1학기 자율학습일

4.21(화) 수업주수 2/4선, 제1학기 수강

신청 취소 마감(1/2선)

5.4(월)~11(월)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5.18(월) 수업주수 3/4선

5.25(월)~6.11(목)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학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